휘발유값 1600원대까지 하락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가 ℓ당 1천688.6원

전남은 1천706.5원 … 지역에 따라 가격차 여전

광주·전남지역 220여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8월 둘째주에 ℓ당 1천700원대까지 하락한데 이어, 지난 22일 1천600원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광주는 가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전남은 가격차가 최고 86원에 이르는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24일 정유업계와 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망인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688.6원으로 내려앉았다. 경유값은 1천676원으로, 휘발유값의 99.25%에 육박했다.

전남지역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706.5원으로, 광주보다 17.9원 높았다. 경유값은 1천687.7원으로 휘발유값의 98.9%에 달했다. 22개 시·군 가운데 휘발유값이 1천600원대인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고, 경유값이 1천600원대인 곳은 13개 시·군에 달했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휘발유와 경유값은 물류비 부담, 주유소 규모 등에 따라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신안군 평균 휘발유값은 1천745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으며, 나주시가 1천659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휘발유값(1천659원)과 경유값(1천610원)의 차이가 49원에 달했다. 장성군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유값(1천699원)이 휘발유값(1천693원)을 앞질렀다.

한편 전국 주유소 9천700여곳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745.69원, 경유가격은 ℓ당 1천716.91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난 5월 초순, 경유가격은 지난 5월 중순 가격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전날보다 ℓ당 13.33원 급락한 1천786.99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 19일(ℓ당 1천798.83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700원대로 떨어졌다. 같은 날 경유 가격도 ℓ당 1천770.60원으로 전날보다 ℓ당 18.76원 떨어져 5월 20일(1천763.87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유류제품 가격책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가격이 지난 21일 현재 배럴당 휘발유는 112.35달러, 경유는 131.67달러 등 모두 지난 4월 중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내 유류제품 가격의 하향안정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값은 1주일 정도, 휘발유값은 2주일 정도 지나면 ℓ당 1천6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신축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도 18층까지 가능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 차원에서 층수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계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종·2종·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은 1종은 4층 이하만 지어야, 2종은 15층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에서는 층수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棟)의 층수를 낮게 하면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령도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은 시도가 15층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18층'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유가 하락에도 8월 물가 7%대 넘는다"

전문가들 6, 7월 고가 수입 원자재가 반영 탓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선도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등 향후 물가가 경제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물가상승률이 6%선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인상 억제를 촉구하는 한편 편승 인상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8월 물가는 6%선은 당연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일부에서는 7%도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가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6월과 7월 높은 가격에 수입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8월 소비자물가는 7%선에 육박하거나 7%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급락해 물가는 한숨 돌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전망이다.

실제로 7월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5%가 올라 지난 1998년의 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총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4월 7.6%, 5월 9.0%, 6월 10.5%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라 지역 기업간 분쟁 해결 내달 중재센터 개소

기업간 민·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대한상사중재원 광주·전남중재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재현), 전라지역 7개 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9월2일 광주상의 7층대회의실에서 광주·전라중재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갖기로 했다.

중재센터는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 법정에 가지 않고, 민간전문가인 중재인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법정제도로, 이곳에서 내린 중재판결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받는다. 또 단심제여서 단기에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일반소송에 비해 10~30% 저렴하다.

광주·전라중재센터는 중재인으로 강신영 변호사를 포함한 54명을 위촉했다.

/이종태기자 jtlee@

함평군 특산물전 인기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살아있는 나비, 곤충체험 함평군 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주관하고 함평군청과 농특산 직거래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특산물전에는 함평산 농특산물과 축산 및 수산물, 양곡류, 가공식품 등 100여 종의 상품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추석 농산물 원산지 표시 오늘부터 일제 단속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25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리원내 169명을 비롯해 명예감시원 600명이 동원돼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등 중소도시 이상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겠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 추석 특별자금 企銀, 7천억원 공급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 확대

기업은행은 24일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들에게 7천억원을 특별 공급하기로 하고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3%포인트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여금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우대 공급하고 담보 대출이나 보증서 대출은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수출 중소기업 환 관리시스템 구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환 위험관리가 취약한 지역내 수출중소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 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환율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외환규모를 파악해 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수출중소기업의 자생적 환 위험관리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또 수출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헤지기법을 적극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 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업체는 직전 분기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로,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 http://gj.smba.go.kr 공지사항 참고)를 작성해 지방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